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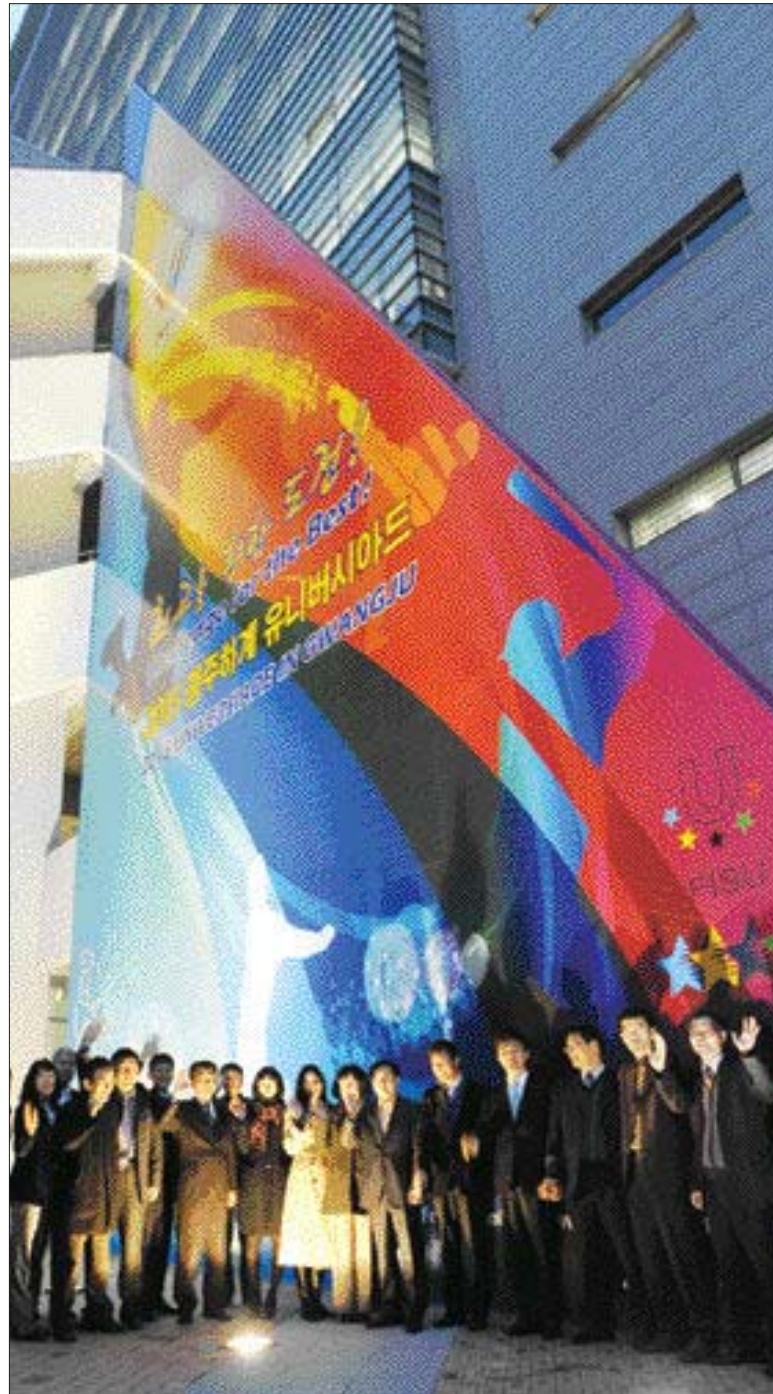
“광주 군비행장 이전 무안공항이 최적지”

국방부 용역 결과... “지자체 합의 맨 검토”

무안국제공항이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지 최적지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광주 공군 비행장 이전지역으로 무안국제공항이 공식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무안국제공항은 최근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매각설이 불거지는 등 처리방향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적지 않은데다 무안지역민들도 공군비행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일 국방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광주 공군비행장을 이전할 경우 대체 가능한 지역을 물색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광주 군사공항 이전 타당성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지 대체지역으로는 인근 서해안지역이 바람직하며, 실제 이전이 구체화될 경우 무안국제공항이 최적

지 가운데 한 곳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따로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항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기존 무안공항을 바다를 매립해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에서는 또, 서해안 지역이 공군비행장 대체지로 판단된데 대해 ▲훈련공역이 넓고 항공기 기동이 자유로우며 ▲소음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국토이용 측면에서도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전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작부터 1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는 그러나 실제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변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도 이전 대상지역인 무안군 주민들이

공군비행장 이전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다, 또 이전 문제는 광주 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와도 겹쳐있다는 점에서 광주와 무안, 전남도 간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호남고속철(KTX)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문제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데다 최근엔 무안공항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정부의 ‘공항 선진화 작업 대상’으로 선정, 민간에 매각될 경우 활주로 동시 사용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등 무안공항의 장기적인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도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용역결과 무안국제공항이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그러나 이전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면 무안 이전은 불가능하며, 다만 광주와 전남, 무안 등의 지자체가 합의해 이전을 요구하면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U대회 꼭 유치하겠습니다” 광주시청 직원들이 2일 밤 청사 삼각 벽면에 부착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 기원포스터 앞에서 대회 유치를 다짐하고 있다. ‘최고의 향한 도전’을 주제로 한 포스터에는 광주 U대회 유치 로고와 대회 개최 종목을 형상화한 역동적인 이미지가 담겨있다. <관련기사 2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미디어법’ 100일간 논의 뒤 표결처리

여야 'F1 지원법' 오늘 본회의 통과도 합의

여야가 2일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와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함에 따라 파국으로 치달았던 국회가 정상화됐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여야는 전남도의 숙원 법안인 F1 지원법(국제 포틀러인 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을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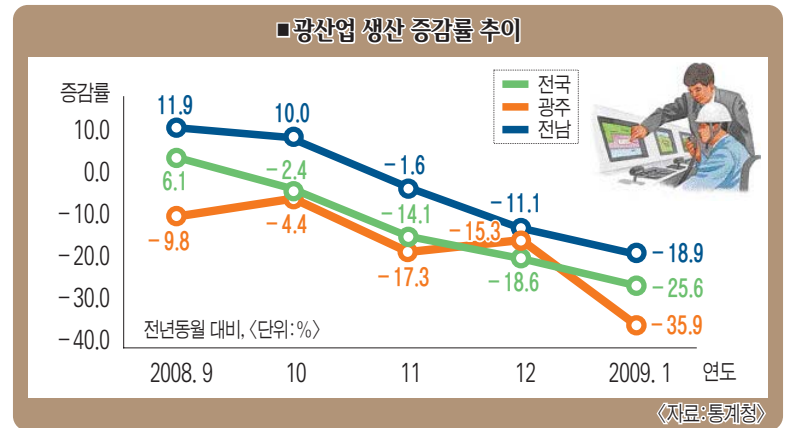
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최대 쟁점인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4개의 경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사회적 논의 추진 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표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 논의 기간을 당초 ‘4개월’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라는 문구 대신 ‘표결 처리’로 전환한 수정 제안을 제시했으며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했다.

이와 함께 여야 지도부는 지난 1일 협상과정에서 F1 지원법을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F1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는 국제경기지원특위 및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수렴하지 못한 채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달러 = 1,570원... 코스피 44P 폭락

원·달러 환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코스피지수가 1,000선을 위협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36.30원 폭등한 1,570.3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998년 3월 11일 1,582.00원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날 환율은 8.00원 오른 1,542.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560원대로 상승한 채 확보한 뒤 오후 들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596.00원까지 치솟았으나 외환 당국의 달러화 매도 개입으로 1,570원대로 밀렸다.
증시에서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44.22포인트(4.16%) 폭락한 1,018.81로 장을 마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산업생산 사상 최악 감소

1월 생산지수, 전년동월보다 35.9% 급감

광주지역 산업현장에 감소로 인한 위기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1월 산업생산이 지난 1986년 지역 산업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한데다, 기아차 광주 2공장의 가동 중단 등 악재가 많아 3~4월에도 산업생산지수의 추락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8면>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1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광주지역 산업생산지수는 72.9(2005=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9%나 감소했다. 이는 전국 산업생산 평균감소율(-25.6%)보다 높았다.
또 기업의 감소 및 장기휴무가 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조업일수가 늘었음에도 17.5% 하락했다.
현대전회카메라 모듈 등의 전자부품과 음향통신 부문이 -57.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자동차제조업도 45.4%나 하락하면서 광주지역 산업생산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기침체로 기아자동차, LG이노텍, 엘코 코리아 등이 감소에 돌입한 것이 그대로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기아차 광주공장은 계속되는 내·외수 침체와 재고누적을 견디지 못하고 3~4월 중에 30여일동안 제2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 지역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감소로 생산저조 → 소비 위축의 악순

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생산 위축에 따라 출하도 줄었다. 출하(78.0)는 음료(맥주, 두유)가 8.5% 증가했지만 자동차제조업(승용차), 전자부품 및 음향 통신 등을 중심으로 줄어들면서 전년 동월 대비 31.6%나 감소했다.
전남의 산업생산지수도 95.9로 전년 동월 대비 18.9% 감소했다.
전남지역의 주요 산업인 1차 금속제품(-42.1%), 고무 및 플라스틱(-34.8%), 화학제품(-12.1%)이 큰 폭으로 줄었다. 출하지수는 -11.7%나 하락했으며 재고지수도 1.5% 증가했다.
반면 올 1월 광주지역의 건설발주액은 224억 2천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83.8%나 증가했으며 전남도 건설발주액도 1조8억8천300만원으로 19.6% 늘었다. 공공부문 조기 발주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로 풀이된다.
/이미연기자 emlee@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한울정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쉼터"

아모레퍼시픽